

다산포럼

구조조정하려면 무책임과 불신 해소돼야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과 교수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제'가 금융위원회 주도로 운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구조적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기업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6월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보면, 외부 감사 대상인 비금융법인 2만5452개 가운데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지 못하는 부실기업은 작년 말 현재 3295개였다. 조사 대상 기업의 15.2%에 이른다. 2009년에는 2698개사로 12.8%였던 것에 비하면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또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서도 49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한계기업 넷 중 세 곳은 이 상태가 몇 해씩 지속되는 만성적 부실 상태이다.

또한 투자분석업체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3년 이상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자본 잠식을 기록한 기업은 793개로서 이들의 지난해 적자는 7조 원을 넘겼으며, 자본 잠식 규모도 49조 원을 넘어섰다. 은행에 돈을 빌린 자산 120억 원 이상의 기업들 중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52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 그리고 매각·인수합병 등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최근에는 주요 기간산업과 대기업 군에서 한계기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쉽게 가능하기도 어렵고,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오던 정부의 논리도 문제가 된다.

내년 초부터 부실 중점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면,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에는 총선 일정을 감안한다 했기 때

문에 벌써부터 대마불사나 형식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높고 은행들의 영향력도 약해서 구조조정 의 주체가 모호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신설을 추진했지만 3조 원 규모의 출자·대출을 떠안게 될 은행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백지화됐던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와 은행 간의 불협화음과 불신도 심하다. 더 이상 자금 지원에 따른 의사 결정의 책임을 져 주지 않는 정부 말을 따르기에야 부담이 너무 컸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계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불신이다. 가장 심각한 조선 업종을 보면 D사의 경우 CEO의 교체 이후 반기 만에 이전 몇 년간 해마다 수천억대 영업이익을 보던 것이 갑자기 3조 2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하반기에도 2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급격한 전환에도 회계상의 문제라는 말 이외에 별다른 해명이 없으니, 시장에서는 후임 CEO가 전임자의 과실을 한 번에 털어내는 부실 떨기를 한 거 아니

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대형 조선기업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 실적 부진 속에서 연말에 상당한 숫자의 경영진 교체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인 전임자 과실 떨기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도 나온다.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경영자의 정직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슨 근거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할 것이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부의 어떤 결정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한편 현재 조선업계의 전문학적 적자가 해양플랜트 산업의 손실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해양플랜트 산업은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 R&D 비용이 연구소와 산업체 등에 투입되었던 부분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재, 세상을 말한다

서형수의 필유당(必有堂)



박철상
문학박사·광주은행 영업지원부장

19세기는 장서가들의 세상이었다. 그들의 장서는 대부분 청나라에서 수입된 중국책이었는데, 그것은 서울의 상징이자 문화의 상징이며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대를 이어가며 장서를 확대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그런 노력 덕분에 19세기에는 그런 장서를 기반으로 한 신지식인들도 등장하였다. 그들은 청나라에서 수입한 새로운 서적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인물들이었다.

서형수(徐馨修·1749~1824)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서형수는 서명응의 아들인데, 서명응은 북학파의 기초를 놓은 인물로서 정조는 그에게 보만재(保晩齋)라는 호를 하사하기

도 하였다. 서명응의 문집 '보만재총서'를 본 정조는 '우리나라에서 400년 동안 이런 거편은 없었다'라는 극찬까지 하였다. 서형수는 독서를 좋아했지만 집에 많은 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그릇, 수레, 말, 의복 등 돈이 되는 물건을 처분하여 책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한 책이 모두 108종에 이르렀는데, 대부분 중국책이었을 것으로 권수로 따지면 수천 권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건물에 하나 지어 이 책들을 갈무리하고 '필유당'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필유'라는 말은 본래 옛날 '정기'란 사람의 고사에서 따온 것이다. 정기는 만권의 책을 구입하고는 '내 자산 중에 틀림없이 학문을 좋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서형수는 바로 여기서 '필유'라는 두 글자를 가져다가 자신의 서재 이름으로 삼았던 것이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책을 구비해 놓으면 자산 중에 틀림없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사람이란 죽으면 반드시 자손에게 뭔가를 남겨주지 마련이다. 그 유명한 제갈

량은 자손들에게 뽕나무 800그루와 밭 15이랑을 남겨주었다고 한다. 자손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다.

또 조병이란 사람은 큰 부자가 되자 자손들에게 '몸을 구부리면 쪼그고개를 들면 취하라'는 가훈을 남겨주었다고 한다. 몸을 움직이면 반드시 돈이 되는 일이라는 의미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제갈량의 자손 중에는 농업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없었고, 조병이란 사람의 후손 중에도 부자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런 데 서형수는 책을 모아놓고 후손 중에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서형수의 생각은 달랐다. 제갈량이나 조병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물이었지만, 자신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치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여겼다. 사물이란 것은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어져버릴 수 있지만, 이치란 것은 늘 있는 것이므로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대상으로 삼은 이치란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후손 중에

그 이치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훌륭한 학자가 틀림없이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한 것이다.

정기의 후손 중에 정도(丁度)란 인물이 태어난 것을 서형수는 그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서형수는 정도(正祖)와의 일화를 소개한다. 그는 정조를 모시면서 역대 중국의 장서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어느 날 정조는 서형수에게 물었다. "네 서재의 이름이 무엇이었나?" "필유입니다." "좋구나. 네게 이런 이름이 있었구나.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정조는 서형수가 서재에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를 알고는 틀림없이 후손 중에 훌륭한 학자가 나타날 것이라 축원을 해주었다.

과연 정조의 축원대로 서형수의 바람은 실현되었을까? 서형수의 바람은 얼마지 않아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인 서유구의 등장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필유당에서 공부했다. 서형수의 조카였기 때문

社說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 문화' 확산 기대된다

도시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은 아마도 주차난이 꼽힐 것이다. 가까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 문화'(共有文化)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이 같은 고민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유 문화 사업은 주차장이나 회의실, 운동장, 문화시설, 자전거 같은 공동의 자원을 시민들이 무료로 나눠 쓰는 캠페인이다. 예를 들어 김치축제가 진행되는 광주 김치타운에서는 장소를 무료로 대여받아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다음달 초 한 쌍의 혼례가 예정돼 있다. 시는 더 나아가 공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지식·정보까지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우선 시민들의 고충이 큰 주차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차장 제공 방법 등 구체적인 요령이 담긴 '주차 공간 나눔 협약'에는 종교시설 31곳, 공공기관 60곳, 마을공간 9곳 등

100곳이 가입했다. 이어 시는 회의실 등 공동 공간을 몰색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시설을 먼저 활용하게 된다. 광주시, 산하기관, 자치구, 교육청, 학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공유자원으로 발굴된다. 대상이 결정되면 시는 해당 장소의 위치 및 사용 조건 등을 파악해 자세한 정보를 구축하고, 지도와 웹사이트를 개발해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이 뿌리내리려면 민간도 적극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 개인 재산에 대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더 나아가 공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지식·정보까지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우선 시민들의 고충이 큰 주차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차장 제공 방법 등 구체적인 요령이 담긴 '주차 공간 나눔 협약'에는 종교시설 31곳, 공공기관 60곳, 마을공간 9곳 등

인기 여전 여수박람회장 정부 재투자 절실

성공 개최 후 3년여가 지났지만 사후 활용 방안조차 안갯속이었던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요즘 전남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가 투자금 회수에 급급할 게 아니라 재투자자를 통해 박람회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폐막 후 현재까지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2013년 190만4000여 명에서 올해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벌써 2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300만 명 돌파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105개 나라와 10여 개 유엔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관람객 820만 명을 유치하면서 세계 5대 해양국가 초성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박람회 폐막에 맞춰 여수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 메카'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후 활

용 윤곽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가 지난 6월에야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과 요구에 일부 구역 장기임대 방안 등을 포함한 사후 활용 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변경안을 보면 종전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매각 일반면'에서 '장기임대 방식'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전향적인 일로 고무적이라 하겠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임대 후 매각'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나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극대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과감한 재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박람회장 투자는 인색한 수준이어서 올해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계비 4억 원 가운데 고차 1억 원을 배정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 투자 없이는 박람회장 인기가 지속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을 지나며 만산홍엽(滿山紅葉), 늦가을 정취가 완연하다. 잎을 모두 떨근 채 주황 빛갈감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시골 마을 감나무는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정겹다. 지난 주말 고향집을 찾아 감을 따다.

손아귀에 쥐어지는 크지 않은 뽕은 '먹시'(먹감)이지만 가을 햇살 속에서 잘 말리면 달적지근한 껍질이 될 수 있다. 먹시는 먹을 뽕씩 짤라 찢는 듯 감 껍질이 껌은 반점이 있는 토종 감이다. 예전에는 집이나 밭 경계에

이 더 맛있다"고 했다. 감나무는 오덕(五德)을 갖춘 나무이다. 원종태의 '한국을 지켜 온 나무 이야기'에 감나무를 예찬하는 대목이 있어 눈길을 끈다. "감나무는 잎이 넓어 글씨 공부를 할 수 있어 문(文)이 있고, 목재가 단단해서 화살촉을 만드니 무(武)가 있으며, 껍질 속이 한결같으니 충(忠)이요, 치아가 없는 노인도 즐겨 먹을 수 있으니 효(孝)라, 서리를 이기고 오래도록 매달려 있으니 절(節)도 갖추고 있다."

조상들은 늦가을에 아무렇지 않게 심어져 감을 따면서도 겨울을 이겨내며 있었으나 요즘은 뽕감 보다는 단감, 토종보

감을 따면서도 겨울을 나며 굶주리는 까치 등 날짐승을 위해 홍시 하나를 남겨둘 줄 알았다. 요즘은 100을 갖고도 타인의 1을 탐내고, 등치는 야박한 세상이다. 하지만 아직도 시골에 가면 '까치밥'을 남겨 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가닥 파산한 희망의 햇살이다.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고기/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요/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나/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송수권 '까치밥' 중에서)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까치밥

기 고

자동차와 광주의 미래



김치균
남부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2015년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끝났다. 기아 타이거즈는 가을야구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나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여주었기에 팬들은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프로야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한미일 프로야구를 즐기다 보면 다소 야구 외적인 것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의 기아, 일본의 한신, 미국 디트로이트 야구단의 마스코트가 모두 '타이거즈'라는 것이다. 또 한국의 타이거즈 연고지인 광주와 미국의 타이거즈 연고지인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산업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관계는 묘한 연대의식 같은 것을 느

끼게 해서 우리 '광주'와 연관시켜 생각해 보게 한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를 연고로 하는 메이저리그 팀으로 4번의 월드시리즈 우승과 11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의 기아 타이거즈를 상상시키는 명문구단이다. 디트로이트시는 지엠,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빅3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중심도시.

1903년 포드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디트로이트시에 자동차공장을 세우고, 이후 GM과 크라이슬러 등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가 앞다퉈 들어오면서 일약 북미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도시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도록 달린 1980년대까지 디트로이트는 호황을 누리지만 1980년대 이후 일본차가 기술력과 디테일을 앞세워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독일 등 유럽 차들도 기술력을 향상시켜 고급차 시장을 잠식하면서 미국 자동차는 점차 경쟁력을 잃게 된다.

화려했던 디트로이트시도 자동차 산업 쇠퇴로 인한 인구 이탈, 방만한 시 운영으로 부채 규모가 늘면서 2013년 7월 파산에 이른다. 도시 곳곳이 폐허가 되고, 예산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140만명이 넘었던 인구는 70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자동차 산업으로 영광을 누리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쇠퇴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후 뛰어난 회생 절차를 밟아 2014년 12월 파산보호를 종료하지만 치안,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등 해결과제가 쌓여있다고 한다.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끌고 가려는 광주시로서는 디트로이트의 선례를 밟지 않도록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디젤 자동차의 연비 조작이 드러난 독일 폭스바겐 사태는 어렵게 쌓아온 기술과 신뢰가 한 번의 과욕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요타를 제치고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하던 폭스바겐의 위세는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고, '기술=독일'이라는 국가 신뢰도도 치명타를 맞았다.

지금 광주는 민주시민, 문화도시, 국제도시라는 명성에 이어 '자동차산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주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으로 30%, 수출액으로 40%

수준이다.

한마디로 광주시를 먹여 살리는 주력 산업이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하여 자동차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2015~2020년 중 자동차전용 임대 국가산단 조성, 친환경자동차 혁신클러스터 조성, 특화분야 유망기술개발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미 IMF를 지나오면서 자동차 동종기업이 외국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상위권으로 도약하기는 힘들어도 추락하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것을 '디트로이트'나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보았다.

전세계 자동차 시장을 두고 글로벌 업체들의 생존 경쟁은 피를 말리는 수준을 넘어지고 있다. 광주 자동차 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산학연의 기술력 극대화,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 등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기아가 프로야구팀 타이거즈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듯, 광주의 자동차산업도 지역민들의 성원 속에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광고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